

브라질, 심해유전 추가매장 확인

Petrobras, 이아라 유전 30억-40억배럴 달해 ... 외환보유 2배 늘어

2007년 말부터 브라질 대서양 연안에서 발견된 심해유전 가운데 추가로 1개 유전의 매장량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는 대서양 연안 산토스만의 이아라(Iara) 심해유전에 30억-40억배럴에 달하는 양질의 경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8월7일 발견된 이아라 유전의 개발지분은 Petrobras가 65%, 영국가스(BG)가 25%, 포르투갈 에너지기업 갈프(Galp)가 10%를 보유하고 있다.

산토스만에서 발견된 심해유전 가운데 매장량이 확인된 것은 투피(Tupi) 유전의 50억-80억배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168억배럴인 브라질의 원유 매장량은 투피 및 이아라 유전을 합하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산토스만에서 발견된 유전은 투피와 이아라를 포함해 카리오카(Carioca), 과라(Guara), 주피터(Jupiter), 벵테비(Bem-Te-Vi), 파라티(Parati), 카람바(Caramba) 등 8개이다.

Petrobras에 따르면, 심해유전은 에스피리토 산토, 리우 데 자네이루, 상파울루, 산타 카타리나 등 4개 주 대서양 연안의 길이 800km, 폭 200km의 범위에 걸쳐 해저 5000-7000m 지점에 넓게 연결돼 있으며, 전체 원유 매장량이 500억배럴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심해유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외환보유액이 현재의 2050억달러보다 2배 정도 많은 3000억-4000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심해유전 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8400억달러, 2017년까지는 1조2000억달러의 민·관합동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2>